미디어, 지각된 위험 특성, 위험 인식의 관계에 대한 연구
발암물질 위험 이슈를 중심으로

좌보경*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 석사과정

윤문영**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 석사과정

백혜진***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 부교수

본 연구는 비개인적 영향 가설, 차별적 영향 가설, 심리측정 접근의 이론적 개념을 바탕으로 위험 인식과 미디어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심리측정 접근'에서 제공하는 지각된 위험의 특성과 '미디어'의 종류가 '개인적 위험 인식', '사회적 위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으며 나아가 이들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위험 이슈로 '발암물질'이라는 시의성 높은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일반인 358명을 상대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식(knowledge)차원의 지각된 위험 특성은 개인적 위험 인식과 사회적 위험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두려움(dread)차원의 지각된 위험 특성은 개인적 위험 인식과 사회적 위험 인식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뉴스 미디어에 대한 노출은 개인적 위험 인식과 사회적 위험 인식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오락적 미디어에 대한 노출은 개인적 위험 인식과 사회적 위험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 cicy87@naver.com

** lookatme_v@naver.com

*** hjpaek@hanyang.ac.kr, 교신저자

www.kci.go.kr

뉴스 및 오락적 미디어 노출이 개인적/사회적 위험 인식에 영향을 주는 데 지각된 위험 특성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위험을 다루는 PR실무자와 정부 관계자에게 특정 위험 이슈에 대해 위험 인식을 낮추거나 높이고자 할 때 어떤 종류의 미디어를 사용하고 어떤 지각된 위험 특성을 강조해야 할지 실무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어: 심리측정 접근, 미디어 노출, 위험 인식, 발암물질, 비개인적 영향 가설, 차별적 영향 가설

1. 서론

최근 우리 사회에는 핵 공격, 테러 사건, 자연 재해, 전염병 등 다양한 종류의 위험이 일상에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한 위험을 인식 하는가' 역시 중요한 문제다. 특히 효과적인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사람들의 위험 인식은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 왔는데, 이는 위험의 정도가 과대 혹은 과소평가되면 실제 위험에 대해 올바르고 과학적인 대응이 힘들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송해룡, 2012). 따라서 사람들의 위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내고 그 요인간의 다양한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는 중요하다.

기존 연구 중 대표적인 위험 인식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슬로빅(Slovic)의 심리측정 접근(Psychometric paradigm)이 있다(차용진, 2006). 이 모델은 사람들이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제도적, 문화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위험을 주관적으로 평가한다고 가정한다. 이 외에 사람들의 위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다. 미디어와 위험 인식 간의 관계에 대한 예로는 타일러와 쿡(Tyler & Cook,

www.kci.go.kr

1984)의 비개인적 영향가설과 스나이더와 루스(Snyder & Rouse, 1995)의 차별적 영향가설이 있는데, 이 가설들은 미디어가 같은 위험 정보를 전달하더라도 미디어의 종류와 특징에 따라 개인과 사회의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수준이 다르다고 말한다(Snyder & Rouse, 1995).

이처럼 미디어가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한 선행연구는 많지만(Tyler & Cook, 1984; Snyder & Rouse, 1995), 지각된 위험 특성과 미디어, 그리고 위험 인식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심리측정 접근에 관한 비판적 논의를 재고찰하고 개인적 영향가설과 차별적 영향가설을 바탕으로 미디어가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위험 인식과 미디어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접근방법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발암물질'이라는 위험을 선정하여 지각된 위험 특성과 미디어가 위험 인식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며, 나아가 미디어와 위험 인식 그리고 지각된 위험 특성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발암물질 위험은 뉴스 미디어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암은 국내 사망원인 1위로 집계될 만큼(환경부, 2009) 개인적, 사회적 위험 인식에 큰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2년 농심라면 스프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사건이 발생 했을 당시, 관련된 뉴스는 사건의 정보 전달과 함께 자극적이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미지나 메시지를 주로 보도하였으며 그 결과로 그 당시 뉴스를 본 많은 사람들은 라면에 대한 걱정에 휩싸였다(서울신문, 2012. 10. 27). 이는 미디어가 사람들의 위험 인식에 큰 영향을 준다는 예시가 될 수 있으며, 미디어와 위험 인식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 주었다.

www.kci.go.kr

2. 문헌연구

1) 위험 사회와 위험 인식

과거에는 홍수, 지진, 태풍 등으로 대변되는 자연환경이 우리 삶에 불안과 위험을 주는 원인이었다면, 오늘날은 새로운 환경이 위험의 주요 원인이다(송해룡, 2012). 신종플루, 광우병, 구제역, 디도스 대란, 전력대란에서 보듯이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위험 사회의 징후가 부쩍 잦아지고 있으며 이렇게 위험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일반인이 위험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다(송해룡 · 조항민 · 이윤경 · 김원제, 2012). 벡(Beck, 1992)은 이러한 현대 사회의 구조를 '위험 사회(Risk Society)'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이러한 위험 사회에서 우리는 '위험'과 관련된 핵심 주제를 공론화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송해룡, 2012). 우리 사회에서 위험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다면, 위험이 과대 혹은 과소평가되어 해당 위험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확하게 진단하거나 그에 따른 과학적인 대응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송해룡, 2012).

일반적으로, 위험(risk)이란 위험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 또는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을 가능성으로 정의한다(Adams, 1995). 이는 안전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개인에게 손상을 입히는 상태라고도 한다(안형기, 2000). 한편, 위험 인식(risk perception)이란 '개인이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인 판단'을 의미하며(Slovic, 1992), 이는 사람들마다 위험에 대해 가지는 위험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위험일지라도 개인 특성에 따라 위험성을 덜 혹은 더 인식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종류의 위험성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며 객관적인 위험과는 분리되는 개념이다.

위험 인식은 크게 객관적인 위험 인식과 주관적인 위험 인식으로 나뉠 수 있는데(오미영 · 최진명 · 김학수, 2006), 먼저 객관적 위험 인식이란 주로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과학적인 것을 의미하며 위험이 발생할 확률에 근거한

www.kci.go.kr

‘실제’ 위험이자 일반인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위험과 구분된다(Graham & Rhomberg, 1996). 반면, 주관적 위험 인식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의 개인적 관점에서 인식되는 위험을 의미하는데, 다양한 측정방법을 통해 각 개인이 주관적으로 위험 인식의 특성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분석하고 평가한다(노진철, 2010). 객관적 위험은 사상자의 수, 재산의 피해규모 등 양적 수량을 통해 위험의 규모를 평가해 왔으나(안형기 · 강인호, 2011), 이러한 접근방법은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설명하기에 충분치 않으며 위험 인식에 있어서 공중의 태도와 인식과 같은 간접적인 영향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Cha, 1997). 이에 비해, 주관적 위험 인식은 객관적인 위험 인식과 일반인들의 위험 인식의 수용 행태와 달라서 초래되는 사회갈등을 분석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노진철, 2010).

예컨대 전문가들은 위험이 발생할 확률에 근거하여 비교적 체계적인 기준을 통해 위험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일반인들은 지각된 위험 특성에 따른 직접적인 위험의 수용가능성을 기준으로 위험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차용진, 1999). 예를 들어 ‘방사능 위험’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들의 위험 인식은 다른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Peters · 송해룡 · 김원제, 2009), 피터스 외(Peters, et al., 2009)는 예를 들어 전문가보다 일반인들이 방사능에 대한 위험을 더 크게 인지하는 기본적인 이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일반인들의 ‘주관적 위험 인식’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위험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면서 위험 인식을 설명하는 다양한 접근방법이 제시 되었다. 그중 심리측정 접근(psychometric approach)은 위험 인식을 이해하는 대표적인 접근방법인데, 슬로빅(Slovic, 1987)에 의해서 개발된 관점이며, 이러한 심리측정 접근은 위험 인식에 대한 강력한 설명력을 제공하고 있다(Sandman, 1997).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일반인의 주관적 위험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심리측정 접근에 대해 자세히 논의해 보고자 한다.

www.kci.go.kr

2) 심리측정 접근

크림스키와 골딩(Krimsky & Golding, 1992)은 위험에 대한 접근 방법을 평면적 관점(unidimensional perspective)에서 접근하는 기술적 접근(technical approach), 다차원 관점(multidimensional perspective)에서 접근하는 심리측정 접근(psychometric approach), 맥락적 관점(contextual perspective)에서 접근하는 문화·사회학적 접근(cultural·sociological approach)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방법 중에서 대표적인 접근방법은 슬로빅(Slovic)의 '심리측정 접근(psychometric approach)'이다(차용진, 2006).

심리측정 접근은 위험의 수용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한 전통적·기술적 접근 방법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 발전하였다(차용진, 2006). 전통적으로 기술적 접근에서는 위험을 객관적이고 평면적인 현상이라고 가정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심리측정 접근에서의 위험은 주관적이고 다차원적인 현상이며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주장한다(차용진, 2006). 예를 들어, 전통적·기술적인 위험 측정방법에서는 위험의 빈도수나 심각성(사망률, 상해율 등)을 체계적으로 계산함으로써 위험을 측정해 왔으나 이러한 위험 측정은 사람들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심리측정 접근에서는 위험을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실체로 보고 전통적·기술적인 위험 측정방법에서 사용하는 수치로는 측정될 수 없으며 다차원적인 측정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차용진, 2006).

피쉬호프, 슬로빅, 리히텐스타인, 리드 그리고 쿰즈(Fischhoff, Slovic, Lichtenstein, Read, & Combs, 1978)는 사람들이 위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심리측정 절차를 이용하여 원자력, 살충제, 스키와 같은 여러 가지 종류의 위험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위험을 인식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위험을 지각하는 주요 심리적 특성은 자발성(voluntariness), 통제성(controllability), 친숙성(familiarity), 과학적/개인적

www.kci.go.kr

지식(scientific/individual Knowledge), 즉각성(immediacy), 두려움(dread)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특성은 사람들이 위험의 특성에 대해 생각 할 때 가지는 심리적 차원으로 간주되며, 이와 같이 지각된 위험 특성은 두 가지 차원인 지식(knowledge)과 두려움(dread)으로 분류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Slovic, Fischhoff & Lichtenstein, 1984).

기존의 연구에서는 어떤 지각된 위험 특성이 선택되었는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위험에 대한 심리적 차원이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인지적(cognitive) 측면을 대표하는 지식과 감정적(emotional) 측면을 대표하는 두려움으로 나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이영애 · 이나경, 2005). 여기서 '두려움(dread)' 차원은 해당 위험이 얼마나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통제할 수 없으며 비자발적으로 노출되는지를 설명하며, '지식(knowledge)' 차원은 과학적/개인적 지식을 비롯한 친숙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이영애 · 이나경, 2005; 차용진, 2006). 또한 심리측정 접근의 재적용을 통해 최근 한국사회의 위험 인식을 분석한 차용진(2007)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위험 특성을 친숙성, 과학적 지식, 개인적 지식으로 묶이는 지식 차원과 자발성, 통제성, 두려움, 재난성으로 묶이는 두려움 차원을 각각 '위험이 알려지지 않은 정도', '위험의 통제가 어려운 정도'라고 명명하고 위험 인식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위험이 알려지지 않은 정도가 높을수록 위험 인식 수준이 높아지며, 위험의 통제가 어려울수록 위험 인식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위험에 대한 지식이 낮을수록, 두려움이 클수록 위험 인식이 커진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타일러와 쿡(Tyler & Cook, 1984)에 의하면 인식된 위험은 개인적 위험(personal risk)과 사회적 위험(social risk)으로 나뉠 수 있다. 여기서 개인적 차원의 위험 인식이란 개인이 특정 위험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느끼는 바를 의미하며, 사회적 위험이란 특정위험이 사회 전반에 걸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 지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의미한다(Tyler & Cook, 1984). 이처럼 위험 인식은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지각된 위험 특성과 위험 인식과의

www.kci.go.kr

관계를 알아 본 선행연구에서는 각각의 지각된 위험 특성이 두 가지 수준의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리하여 살펴보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개인적 위험 인식과 사회적 위험 인식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위험 인식이므로, 어떤 위험 인식이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위험에 대한 태도나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험 인식을 연구하는 데 각각의 위험 인식을 분리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심리측정 접근에서 제시하는 지각된 위험 특성과 두 가지 수준의 인식된 위험과의 관계를 각각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심리측정 접근에서 두 가지 차원의 지각된 위험 특성(지식/두려움)은 개인적 위험 인식과 어떠한 관계를 가질 것인가?

연구문제 2: 심리측정 접근에서 두 가지 차원의 지각된 위험 특성(지식/두려움)은 사회적 위험 인식과 어떠한 관계를 가질 것인가?

심리측정 접근에 관한 위와 같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심리측정 연구에서 강조되고 있는 지각된 위험 특성으로는 위험 인식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이나영 · 이나경, 2005). 예를 들어 존슨과 코벨로(Johnson & Covello, 1987)는 위험에 대한 사회 문화적인 관점 역시 위험 인식을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변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사람들이 위험을 인식하는 데 지각된 위험의 특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 사회의 위험 인식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 '미디어'를 빼놓을 수 없다(Tyler & Cook, 1984).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위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대신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위험을 접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재신, 2012). 위험을 보도하는 역할과 기능을 가진 미디어는 공중에게 위험에 관한 두려움이나 공포감과 같은 감정적 효과를

www.kci.go.kr

유발 할 수도 있고, 지식 습득을 위한 정보원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송해룡 · 김찬원 · 김원재, 2013). 그리고 이러한 미디어가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되어 왔다(Tyler & Cook, 1984; Snyder & Rouse, 1995). 하지만 미디어와 지각된 위험 특성, 위험 인식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심리측정 접근이 제시한 지각된 위험 특성, 그리고 위험 인식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위험 인식에서 미디어의 중요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위험 인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는 '미디어'다(Tyler & Cook, 1984).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위험으로 인한 공포감은 사람의 행동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디어가 전달하는 위험상황은 수용자의 심리적 불안, 걱정, 공포, 초조함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Bryant & Thompson, 2001). 또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위험을 인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매스미디어를 함께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인데, 그 이유는 일반 사람들이 대체로 미디어를 통해 위험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의견을 형성하기 때문이다(송해룡, 2012).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수많은 주제는 위험과 관련이 있으며(Peters, et al., 2009), 매스미디어는 대중이 위험사안을 접하는 가장 용이한 경로가 되기도 한다(송해룡 외, 2012). 또한 위험 보도와 관련된 주제는 생명, 건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미디어에서의 위험보도는 시청자들의 감정을 발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시청자들의 높은 관심을 보장하는 주제다. 예를 들어 특정사건에 대한 위험정보가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면, 위험에 대한 수용자들의 지식과 태도는 미디어의 영향을 받는다(Singer & Endreny, 1993). 따라서 미디어가 위험에 대한 정확한 보도를 하지 않고 과장되거나 과소평가된 보도를 하게 된다면 이는 사람들의 위험 인식에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Kepplinger, 1989). 미디어와 위험 인식에

www.kci.go.kr

대한 가설로는 '비개인적 영향 가설'과 '차별적 영향가설'이 있는데, 이 가설들은 미디어가 개인적 혹은 사회적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각기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1) 비개인적 영향 가설

비개인적 영향 가설(impersonal impact hypothesis)이란, 매스미디어를 통한 위험 메시지는 특정 위험이 사회 내에 만연하다는 인식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적 위험 인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Tyler & Cook, 1984). 타일러와 쿡(Tyler & Cook, 1984)이 제안한 비개인적 영향 가설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구성요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람들의 위험 인식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구성요인은 개인적/사회적 위험 인식에 미치는 정보원천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다. 타일러와 쿡(Tyler & Cook, 1984)에 의하면 사회적 차원의 위험 인식에는 매스미디어가 영향을 미치며 개인적 차원의 위험 인식에는 개인의 직접 경험이나 주위사람들과의 대화 같은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주로 영향을 미친다.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개인적/사회적 위험 인식은 상호 차별적이고, 대체로 서로 분리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사회에 대해 갖는 전반적인 관점으로부터 자신에게 적용되는 함의를 이끌어 내지는 않는다고 한다(Tyler & Cook, 1984). 예들 들어,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율과 자신이 겪게 될 범죄에 대한 판단은 서로 독립적인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는 것이다(Brosius & Engel, 1996; Shrum & Bischak, 2001). 이러한 연구는 위험 인식에 있어서 매스미디어와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차별화된 영향을 주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Tyler & Cook, 1984).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위험은 사회 전반에 걸친 위험 현상이며 이에 대한 위험 수준과 대응 행동 등을 바람직한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보도된다. 이러한 이유로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개인적 위험 인식보다는 사회적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비교적 위험에 관해 보다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는

www.kci.go.kr

점에서 개인 수준의 위험 인식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Basil & Brown, 1997; 김준홍, 2011).

비개인적 영향 가설은 타일러와 쿡(Tyler & Cook, 1984)의 연구를 비롯하여 몇 가지 선행연구가 지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컬버츤과 스템펠(Culbertson & Stempel, 1985)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국민들의 건강문제에 대해서 생각 할 때는 주로 매스미디어의 보도에 의존하지만, 자기 자신의 건강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는 주로 개인적 경험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모톤과 덕(Morton & Duck, 2001)의 피부암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는 피부암에 대해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했다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피부암에 대한 개인적 위험을 더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부암에 대한 정보를 매스미디어를 통해 더 많이 접했다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사회적 위험을 더 크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의 예로 차동필(2010)은 신종플루를 소재로 하여 비개인적 영향 가설을 검증하였는데, 신종플루에 대해 주변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개인적 위험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종플루에 대한 정보를 매스미디어를 통해 더 많이 접했다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사회적 위험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동필(2011)의 매스미디어와 대인커뮤니케이션에 따른 대학생들의 청년 실업 위험 인식에 대한 연구 역시 같은 결과를 보였다.

(2) 차별적 영향 가설

비개인적 영향 가설은 미디어가 사회적 위험 인식에만 영향을 미칠 뿐 개인적 위험 인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예측하고 있다. 그렇지만 어떤 종류의 매스미디어는 개인적 차원의 위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차별적 영향 가설(differential impact hypothesis)이다(Snyder & Rouse, 1995). 스나이더와 루스(Snyder & Rouse, 1995)에 의하면 매스미디어 메시지가 생생하거나 극적이면 사회적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위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이들은 에이즈와 관련한 연구를

www.kci.go.kr

통해 차별적 영향 가설의 예측력을 입증하였는데, 연구 결과 미디어 유형을 구분하기 전에는 미디어 노출과 개인적 위험 인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지만, 미디어를 뉴스 미디어와 오락적 미디어(영화, 시트콤 등)로 구분하였을 경우 오락적 미디어는 개인적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생함이나 극적인 요소가 더 많은 오락물의 경우 정보적 성격의 뉴스와는 달리 개인적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나이더와 루스(Snyder & Rouse, 1994)가 차별적 영향 가설을 주장하기 이전에도 비개인적 영향 가설을 주장한 타일러와 쿡(Tyler & Cook, 1984) 역시 위기상황이 개인적으로 관련이 높은 경우 매스미디어도 개인적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콜먼(Coleman, 1993)의 연구에서는 같은 정보일지라도 TV뉴스를 통해 전달된 정보는 개인적 위험 인식에, 신문을 통한 정보 전달은 사회적 위험 인식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TV뉴스가 신문 뉴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생생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슬레이터와 라시니스키(Slater & Rasiniski, 2005)의 연구에서는 미디어 종류에 따른 위험 인식의 차이에 대해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노출은 사람들의 인지적 위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반면, 오락적 프로그램은 비교적 자극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감정적 위험 판단에 영향을 주고 이는 개인적 위험 인식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위험 인식을 연구할 때 해당 위험과 관련한 개인의 특성 차이와 위험을 전달하는 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준다.

뉴스 미디어와 오락적 미디어가 개인적, 사회적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차별적 영향가설에서도 이 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예측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선행 연구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미디어와 개인 성향에 따라 개인적, 사회적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보고하기도 했다(So, Cho, & Lee, 2011). 흡연을 주제로 차별적 영향가설을 검증한 소 외(So, et al., 2011)의 연구에서는 미디어의 종류에 따라 실험 참가자들의 개인적/사회적 위험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에 의하면 오락적 미디어에 대한 노출은 비흡연자의 개인적 위험

www.kci.go.kr

인식에 정적(+) 영향을 준 반면 상대적으로 정보적 성격이 강한 다큐멘터리 미디어는 비흡연자의 개인적 위험 인식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 정보적 성격의 미디어로 분류된 인포테인먼트의 경우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사회적 위험 인식에 모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뉴스와 오락적 미디어가 개인적 혹은 사회적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가설로 제시할 충분한 이론적 및 경험적 선행 연구는 부족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3: 뉴스 미디어에 대한 노출은 사회적 위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4: 오락적 미디어에 대한 노출은 개인적 위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한, 위험의 특성과 미디어 노출은 위험 인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각각 연구되었지만, 이 두 가지 변인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두 변인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지각된 위험 특성이 위험 인식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 이유는 일반인들이 매스미디어에서 묘사하는 위험 주제에 자주 노출되면, 해당 위험에 대해 익숙해지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등의 위험 특성을 지각하게 되며 이는 다시 개인적 혹은 사회적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노출이 위험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지각된 위험 특성의 매개 역할을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5: 위험과 관련된 뉴스 및 오락적 미디어 노출이 개인적/사회적 위험 인식에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 지각된 위험의 특성이 매개 역할을 할 것인가?

www.kci.go.kr

3. 연구방법

1) 위험 이슈 선정

발암물질을 본 연구의 위험 이슈로 선택한 이유는 이슈의 시의성과 중요성 때문이다. 발암물질이란 말 그대로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을 가리킨다(환경부, 2009).

통계청(2012)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10대 사인은 악성 신생물(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고의적 자해(자살), 당뇨병, 폐렴, 만성하기도 질환, 간 질환, 운수사고, 고혈압 성 질환 순으로 총 사망자의 70.8%가 위의 10대 사인에 의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201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남자 179명, 여자 107명으로 총 구성비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독보적 사망원인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발암물질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펼칠 정도로 발암물질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환경부, 2011).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공업단지는 물론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필품이나 음식에서까지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미디어를 통해 전해지고 있으며, 최근 '휴대전화'까지 발암 가능 물질로 보고되면서 국민들의 발암물질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하였고 그에 따른 불안감 또한 커지고 있다.

최근 발생한 농심의 라면스프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사례에서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농심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거나(조선일보, 2012. 10. 24), 특정 발암물질에 대한 기준치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식약청(식품의약품안전청)을 맹렬히 비난하며(뉴시스, 2012. 10. 24), 발암물질 검출 사건에 대해 적극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또한, 미디어에서는 벤조피렌이나 석면과 같은 특정한 발암물질을 강조하여 보도하기 보다는 '발암물질'이라는 단어를 더 자주 사용하며 보도되는 경향이 있다. 윤문영 · 좌보경 · 백혜진(2013)의 연구에 의하면 2003년부터

www.kci.go.kr

2012년 6월까지 '발암물질' 관련 온라인 기사를 검색하기 위해 '발암물질'이라는 키워드로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기사를 검색했을 때 22,898개의 기사가 검색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온라인 미디어를 포함하여 전통 미디어를 통해 위험 이슈를 접하는 국민들도 '발암물질'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에 더 익숙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암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발암물질'이라는 위험의 특성과 '발암물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가 사람들의 위험 인식을 형성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자료 수집 과정

본 연구는 전문 온라인 리서치회사를 통해 전국에 있는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한 표본은 성별, 연령, 소득, 학력 등을 고려하여 층화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에게는 온라인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 하여 이들의 설문참여 자발성과 성실성이 높아지도록 하였다. 총 10,727부의 온라인 설문지가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패널에게 발송되었으며 이 중 471명이 온라인 설문지에 참여하여 응답율은 4.4%로 나타났다. 엄격한 데이터 검증을 통해 불성실하게 응답한 참가자 29명, 설문을 중단한 참가자 27명,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본 연구의 대상이 아닌 참가자 57명을 제외하여 총 358명(남: 175, 여: 183)이 최종 분석에서 사용되었다.

3) 주요 변인의 측정

(1) 지각된 위험 특성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위험 특성을 '사람들이 위험에 대해 생각할 때 갖는 심리적 특성이자 위험을 구성하는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지각된 위험 특성

www.kci.go.kr

은 심리측정 접근 모델이 제시한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측정하였다. 심리측정 접근을 활용한 기존 연구들은 지각된 위험 특성으로 자발성(voluntariness), 즉각성(immediacy), 지식(knowledge), 통제성(controllability), 두려움(dread), 재난성(catastrophe), 친숙성(familiarity), 심각성(consequence)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슬로빅 외(Slovic, Fischhoff, & Lichtenstein, 1984; 1985)와 슬로빅(Slovic, 2000)의 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되고 본 연구의 주제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식, 통제성, 친숙성, 두려움, 즉각성을 포함한 5개의 지각된 위험 특성으로 측정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7점 라이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2) 미디어 노출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노출을 '미디어를 통해 위험에 관한 정보에 수동적으로 노출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스나이더와 루스(Snyder & Rouse, 1995)의 차별적 영향 가설 연구를 바탕으로 오락적 미디어와 뉴스 미디어로 구분하였다. 매체, 기능, 혹은 미디어 콘텐츠 등을 모두 포괄하는 '미디어'라는 개념은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하게 사용한 바 있다. 예를 들어 글린과 오스만(Glynn & Ostman, 1988)은 미디어의 콘텐츠와 기능에 따라 정보적인 미디어와 생생하고 극적인 미디어로 구분하였다. 즉, 니스벳과 로스(Nisbett & Ross, 1980)는 생생한 정보에 대해 감정적으로 흥미롭고 이미지가 자극적이며, 실제와 근접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를 오락적 미디어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스나이더와 루스(Snyder & Rouse, 1995)는 뉴스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며 정보적인 기능을 하는 미디어를 뉴스 미디어로 분류하였으며, 오락적인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며 더욱 실감나게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미디어를 오락적 미디어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뉴스 미디어와 오락적 미디어로 구분하였다.

미디어 노출 문항은 스나이더와 루스(Snyder & Rouse, 1995)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오락적 미디어 노출과 관련된 문항은 '발암물질에 대해 텔레비전 드라마, 시트콤, 혹은 영화에서

www.kci.go.kr

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를 포함한 총 2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뉴스 미디어 노출과 관련된 문항은 '발암물질에 대해 텔레비전 뉴스에서 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를 포함하여 총 4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본 문항은 "전혀 없다"부터 "자주 있다"까지 7점 라이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3) 위험 인식

본 연구는 위험 인식을 개인적 위험 인식과 사회적 위험 인식으로 구분하였다. 즉, 타일러와 쿡(Tyler & Cook, 1984)의 정의에 따라 개인적 위험 인식을 '특정 위험에 대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느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사회적 위험 인식을 '특정위험이 사회 전반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느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위험 인식 문항은 타일러와 쿡(Tyler & Cook, 1984)과 모톤과 덕(Morton & Duck, 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개인적 위험 인식과 관련된 문항은 '귀하에게 발암물질은 심각한 문제입니까?'를 포함하여 총 4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사회적 위험 인식과 관련된 문항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발암물질은 심각한 문제입니까?'를 포함하여 총 4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본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7점 라이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4. 연구 결과

1) 응답자의 구성

본 연구는 전문 온라인 리서치회사를 통해 전국에 있는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에 참여한 응답자가 358명(남: 175, 여: 183)이었으며,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표 1〉과 같다.

www.kci.go.kr

〈표 1〉 응답자 구성

항목 (M, SD)		빈도(%)
성별	남	175(48.9)
	여	183(51.1)
나이 (39.07, 11.18)	19~29	88(24.6)
	30~39	91(25.4)
	40~49	91(25.4)
	50세 이상	88(24.6)
소득	100만 원 미만	6(1.7)
	100~300만 원 미만	98(27.4)
	300~500만 원 미만	151(42.2)
	500~700만 원 미만	61(17.1)
	700~900만 원 미만	23(6.4)
	900만 원 이상	19(5.3)
학력 (4.27, 1.02)	초등학교 졸업 이하	2(0.6)
	중학교 졸업	1(0.3)
	고등학교 졸업	109(30.4)
	전문대학교 졸업	59(16.5)
	4년제 대학교 졸업	160(44.7)
	대학원 졸업 이상	27(7.5)
결혼 여부	미혼	127(35.5)
	기혼	225(62.8)
	이혼 및 사별	6(1.7)
Total		358(100)

www.kci.go.kr

본 연구는 온라인을 통한 설문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설문의 불가피한 한계점인 저조한 응답률이라는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방대한 양의 설문응답을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 358개라는 적지 않은 수의 응답을 확보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연구에 사용된 358개의 설문 응답은 엄격한 검열을 통해 불성실한 응답은 제외한 것이며 응답자의 특성 역시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구통계학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한 것이었다.

2) 측정문항의 신뢰성

(1) 지각된 위험 특성

지각된 위험 특성 변인은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구성 요인을 지식(knowledge)과 두려움(dread)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험을 지각하는 심리적 특성 간의 구조를 탐구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실시하였다. 심리측정 접근을 제안한 슬로빅(Slovic, 1987)의 연구에서 심리적 특성 간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국내에서도 이영애와 이나경(2005)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것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도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성분방법(Principle Component Method: PCA)과 배리맥스 회전방법(Varimax rotation)을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요인분석 결과, 지식(knowledge) 차원은 지식, 통제성, 친숙성과 관련이 있으며, 두려움(dread) 차원은 두려움, 즉각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영애와 이나경(2005), 차용진(2006)의 연구에서 통제성은 두려움 차원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또한 본 연구의 지식항목은 과학적 지식과 개인적 지식이 아닌 일반적인 지식을 나타낸다.

www.kci.go.kr

〈표 2〉 지각된 위험 특성 요인분석 결과

항목		지각된 위험 특성	
		지식	두려움
지식	개인적으로 발암물질과 관련해 잘 알고 있다.	.787	.156
통제성	발암물질에 노출 되었을 때,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	.780	.045
친숙성	발암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에 대하여 친숙하다.	.755	.126
두려움	발암물질이 두렵다.	-.026	.877
즉각성	발암물질에 노출 되면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이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289	.725
고유값(eigen value)		2.128	1.093
설명변량(%)		37.680	26.735

〈표 3〉 기존 연구의 지각된 위험 특성 요인분석 결과

	지식(knowledge)차원	두려움(dread) 차원
이영애 · 이나경(2005)	개인지식, 과학지식, 친숙성	자발성, 통제성, 두려움, 파국성
차용진(2006)	개인지식, 과학지식, 친숙성	자발성, 통제성, 두려움, 재난성
본 연구	지식, 친숙성, 통제성	두려움, 즉각성

통제성은 문제의 발생이 사전에 통제 가능 혹은 불가능 했는지의 정도를 가리킨다(Oh, 2003). 통제 가능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통제 불가능은 통제 밖의 일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므로(Weiner, 2000), 통제성을 평가할 때는 인지과정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식 차원은 인지적인 측면을 대표하며, 두려움 차원은 감정적인 측면을 대표한다(Slovic, 2000; 이영애 · 이나경, 2005; 차용진, 2006). 따라서 인지과정이 수반되는 통제성의 특징으로 인해 본 연구의 결과에서 통제성이 인지적 측면을 대표하는 지식 차원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영애와 이나경(2005)연구에 의하면, 위험 이슈와 수용자의 특징에 따라 지각된 위험 특성을 달리 평가하

www.kci.go.kr

〈표 4〉 지각된 위험 특성 신뢰도

요인	항목	α 값
지식	개인적으로 발암물질과 관련해 잘 알고 있다.	.692
	발암물질에 노출 되었을 때,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	
	발암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에 대하여 친숙하다.	
두려움	발암물질이 두렵다.	.459*
	발암물질에 노출 되면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이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노트: * 두려움 측면은 2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므로 alpha 값이 아닌 문항 간 상관계수(inter-item correlation).

여 요인분석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통제성이 지식 차원에 포함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지각된 위험 특성의 신뢰도 검정 결과, 지식 차원은 .692로 나타났고 두려움 차원은 .459로 나타나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단, 두려움 차원의 지각된 위험 특성은 두 가지 측정문항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알파값 대신 문항 간 상관계수(inter-item correlation)를 사용하였다(〈표 4〉 참조).

(2) 미디어 노출

미디어 노출의 신뢰도 검정 결과, 오락적 미디어 노출은 .406로 나타났고 뉴스 미디어 노출은 .810이었다. 단, 오락적 미디어 노출은 두 가지 측정문항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알파값 대신 문항 간 상관계수(inter-item correlation)를 사용하였다(〈표 5〉 참조).

(3) 위험 인식

위험 인식 문항의 신뢰도 검정 결과 개인적 위험 인식은 .923, 사회적 위험 인식은 .869로 나타났다(〈표 6〉 참조).

www.kci.go.kr

〈표 5〉 미디어 노출 신뢰도

요인	항목	α 값
오락적 미디어 노출	발암물질에 대해 〈비타민〉이나 〈위기탈출 넘버원〉과 같은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에서 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406*
	발암물질에 대해 텔레비전 드라마, 시트콤, 혹은 영화에서 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뉴스 미디어 노출	발암물질에 대해 다큐멘터리나 시사프로그램에서 보거나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810
	발암물질에 대해 텔레비전 뉴스에서 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발암물질에 대한 신문 기사 혹은 잡지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발암물질에 대한 인터넷 뉴스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노트: * 오락적 미디어 노출은 2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므로 alpha 값이 아닌 문항 간 상관계수(inter-item correlation).

〈표 6〉 위험 인식 신뢰도

요인	항목	α 값
개인적 위험 인식	귀하에게 발암물질은 심각한 문제입니까?	.923
	귀하는 본인이 발암물질로 인한 영향을 받을까봐 걱정이 되십니까?	
	귀하는 발암물질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까?	
	귀하는 본인에게 발암물질이 위험하다고 느낍니까?	
사회적 위험 인식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발암물질은 심각한 문제입니까?	.869
	우리나라 국민들은 발암물질로 인한 영향을 받을 까봐 걱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발암물질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발암물질이 위험하다고 느낍니까?	

www.kci.go.kr

3)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표 7〉와 같다. 다음으로 〈표 8〉은 본 논문의 주요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지식 차원의 지각된 위험 특성은 개인적 위험 인식과 정적(+) 상관관계(Pearson's $r = .226$, $p < .001$)를 보이고, 사회적

〈표 7〉기술통계량

변인	M	SD
지각된 위험 특성(지식)	3.59	.986
지각된 위험 특성(두려움)	4.53	1.05
오락적 미디어 노출	4.15	1.31
뉴스 미디어 노출	5.17	.959
개인적 위험 인식	4.86	1.15
사회적 위험 인식	5.22	.934

〈표 8〉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지각된 위험 특성 (지식)	지각된 위험 특성 (두려움)	오락적 미디어 노출	뉴스 미디어 노출	개인적 위험 인식	사회적 위험 인식
지각된 위험 특성 (지식)	1					
지각된 위험 특성 (두려움)	.296***	1				
오락적 미디어 노출	.312***	.315***	1			
뉴스 미디어 노출	.224***	.204**	.594***	1		
개인적 위험 인식	.226***	.532***	.288***	.329***	1	
사회적 위험 인식	.236***	.469***	.305***	.393***	.691***	1

*$p < .05$, **$p < .01$, ***$p < .001$

www.kci.go.kr

위험 인식과 정적(+) 상관관계(Pearson's r=.236, p<.001)를 보인다. 두려움 차원의 지각된 위험 특성은 개인적 위험 인식과 정적(+) 상관관계(Pearson's r=.532, p<.001)를 보이며, 사회적 위험 인식과 정적(+) 상관관계(Pearson's r=.469, p<.001)를 보인다. 또한 오락적 미디어 노출은 개인적 위험 인식(Pearson's r=.288, p<.001)과 사회적 위험 인식(Pearson's r=.305, p<.001)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뉴스 미디어 노출은 개인적 위험 인식(Pearson's r= .329, p<.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사회적 위험 인식(Pearson's r= .393, p<.001)과도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4) 〈연구문제 1〉, 〈연구문제 2〉, 〈연구문제 3〉, 〈연구문제 4〉에 대한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1〉, 〈연구문제2〉와 〈연구문제 3〉, 〈연구문제 4〉을 검증하기 위해 개인적 위험 인식과 사회적 위험 인식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는 두 개의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회귀모델에서, 첫 번째 블록에서는 나이, 성별, 수입, 교육수준, 결혼 여부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넣음으로써 통제하고자 했다. 두 번째 블록에서는 지식과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 지각된 위험 특성변인을 넣었고 마지막 세 번째 블록에서는 오락적 미디어 노출과 뉴스 미디어 노출 변인을 넣었다(〈표 9〉참조).

심리측정 접근에서 두 가지 차원의 지각된 위험 특성(지식/두려움)은 개인적 위험 인식과 어떠한 관계를 가질 것인가라는〈연구문제 1〉을 검증한 결과, 지식 차원의 지각된 위험 특성은 개인적 위험 인식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두려움 차원의 지각된 위험 특성은 개인적 위험 인식에 유의미하게 정적(+) 영향을 주는 것(beta=.462, p<.001)으로 나타났다. 즉, 위험에 대해 두려워하는 정도가 클수록 본인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개인적 위험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측정 접근에서 두 가지 차원의 지각된 위험 특성(지식/두려움)은 사회적 위험 인식과 어떠한 관계를 가질

www.kci.go.kr

〈표 9〉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N＝358)

변인	개인적 위험 인식	사회적 위험 인식
1st block:통제 변인		
나이	-.052	.060
성별(여)	.082	.053
소득	0.16	-.007
학력	-.008	-.048
결혼 여부	.143	.036
△R^2	.063***	.043**
2nd block:지각된 위험 특성		
지식	.046	.069
두려움	.462***	.379***
△R^2	.250***	.198***
3rd block:미디어 노출		
오락적 미디어 노출	-.036	-.045
뉴스 미디어 노출	.237***	.328***
△R^2	.044***	.086***
Total R^2	.357***	.327***

*p＜.05, **p＜.01, ***p＜.001

것인가라는 〈연구문제 2〉를 검증한 결과, 지식 차원의 지각된 위험 특성은 사회적 위험 인식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두려움 차원의 지각된 위험 특성은 사회적 위험 인식에 유의미하게 정적(＋) 영향을 주는 것(beta＝.379, p＜.001)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위험에 대해 두려워하는 정도가 클수록 사회적으로 위험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미디어에 대한 노출은 사회적 위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연구문제 3〉을 검증한 결과, 뉴스 미디어에 대한 노출은 사회적 위험 인식에 정적(＋) 영향(beta＝.328, p＜.001)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www.kci.go.kr

에 대한 뉴스 미디어에 많이 노출될수록 사회적으로 위험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추가로 뉴스 미디어에 대한 노출은 개인적 위험 인식에도 정적(+) 영향(beta=.237, p<.001)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뉴스 미디어 노출은 개인적 위험 인식과 사회적 위험 인식 모두에게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에 대한 뉴스 미디어에 많이 노출될수록 사회적으로 위험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높아지는 동시에 개인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락적 미디어에 대한 노출은 개인적 위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연구문제 4〉을 검증한 결과, 오락적 미디어에 대한 노출은 개인적 위험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한 오락적 미디어에 대한 노출은 사회적 위험 인식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연구문제 5〉에 대한 검증 결과

위험과 관련된 뉴스 및 오락적 미디어 노출이 개인적/사회적 위험 인식에 영향을 주는 데 지식과 두려움이라는 위험의 특성이 매개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연구문제 5〉를 검증하기 위해 바론과 케니(Baron & Kenny, 1986)의 방식을 따라 매개 검증(Mediation tests)을 실시하였다. 4단계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매개 검증은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종속변인을 예측하는 회귀분석에 함께 넣었을 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직접효과(direct effect)가 유의미하지 않을 때를 완전 매개 효과(full mediation)라고 하며, 반면에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직접효과가 유의미할 때는 부분 매개 효과(partial mediation)로 판단한다. 또한 매개효과(indirect effect)의 크기를 산출함은 물론 효과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벨 테스트

www.kci.go.kr

〈표 10〉 매개효과 검증(N＝358)

	종속변인	
	개인적 위험 인식	사회적 위험 인식
독립변인1: 오락적 미디어 노출 매개변인1: 지각된 위험 특성(지식)		
Step 1: 독립변인 → 종속변인	.288***	.305***
Step 2: 독립변인 → 매개변인	.312***	.312***
Step 3: 매개변인 → 종속변인	.226***	.236***
Step 4: 독립변인 → 종속변인	.241***	.256***
Sobel test (z-score)	3.579***	3.679***
독립변인1: 오락적 미디어 노출 매개변인2: 지각된 위험 특성(두려움)		
Step 1: 독립변인 → 종속변인	.288***	.305***
Step 2: 독립변인 → 매개변인	.315***	.315***
Step 3: 매개변인 → 종속변인	.532***	.469***
Step 4: 독립변인 → 종속변인	.133**	.175***
Sobel test (z-score)	5.572***	5.360***
독립변인2: 뉴스 미디어 노출 매개변인1: 지각된 위험 특성(지식)		
Step 1: 독립변인 → 종속변인	.329***	.393***
Step 2: 독립변인 → 매개변인	.224***	.224***
Step 3: 매개변인 → 종속변인	.226***	.236***
Step 4: 독립변인 → 종속변인	.293***	.358***
Sobel test (z-score)	3.087**	3.150**
독립변인2: 뉴스 미디어 노출 매개변인2: 지각된 위험 특성(두려움)		
Step 1: 독립변인 → 종속변인	.329***	.393***
Step 2: 독립변인 → 매개변인	.204***	.204***
Step 3: 매개변인 → 종속변인	.532***	.469***
Step 4: 독립변인 → 종속변인	.230***	.310***
Sobel test (z-score)	3.727**	3.903**

노트: 각 매개 효과에서 Step 4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을 예측하는 다중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인의 효과임.

www.kci.go.kr

(sobel test)를 수행해야 한다(MacKinnon, Lockwood, & Williams, 2004).

본 연구의 매개 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먼저 독립변인인 오락적 미디어에 대한 노출과 뉴스 미디어에 대한 노출이 종속변인인 개인적 위험 인식에 모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소벨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지식 차원의 지각된 위험 특성과 두려움 차원의 지각된 위험 특성 모두 오락적 미디어 노출과 뉴스 미디어 노출이 개인적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매개하는 변인임을 입증하였다.

다음으로 독립변인인 오락적 미디어에 대한 노출과 뉴스 미디어에 대한 노출이 종속변인인 사회적 위험 인식에 모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벨 테스트 결과, 지식 차원의 지각된 위험 특성과 두려움 차원의 지각된 위험 특성 모두 오락적 미디어 노출과 뉴스 미디어 노출이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매개하는 변인임을 입증하였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심리측정 접근과 비개인적 영향 가설과 차별적 영향 가설의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미디어의 노출과 지각된 위험 특성, 위험 인식의 직간접적인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첫째, 여러 가지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했을 때 지식 차원의 지각된 위험 특성은 개인적 위험 인식과 사회적 위험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두려움 차원은 개인적 위험 인식과 사회적 위험 인식에 유의미하게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암물질 위험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얼마나 친숙한지 보다는 그 위험에 대한 감정적인 특성을 크게 지각 할수록 개인적 위험 인식과 사회적 위험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각된 위험 특성이 다르게

www.kci.go.kr

영향받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연구에서도 지각된 위험 특성을 지식 차원과 두려움 차원으로 구분해서 진행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둘째, 미디어의 노출도 미디어의 종류에 따라 위험 인식에 다르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미디어에 대한 노출은 개인적 위험 인식과 사회적 위험 인식에 유의미하게 정적(+) 영향을 주지만, 오락적 미디어의 노출은 개인적 위험 인식과 사회적 위험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위험에 대한 뉴스에 많이 노출될수록 개인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정도와 사회적으로 위험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앞서 언급한 선행 연구(Snyder & Rouse, 1995; So, et al., 2012; 차동필, 2010)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연구 주제의 차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선행연구의 연구주제가 에이즈와 흡연 등으로 개인적인 건강에 관련된 위험이었기 때문에 미디어는 개인이나 주위의 경험에 비해 더 비개인적 영향(impersonal impact) 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 건강 문제는 매우 익숙하기 때문에 인지 과정이 수반되는 뉴스 미디어보다 감정이입 등의 감정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오락적 미디어가 개인적 위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 반면, 본 연구의 주제는 환경 위험으로서의 발암물질이었다. 발암물질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며 주로 미디어를 통해 간접 경험을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미디어를 통해 공장이나 음식 등에서 발견되는 발암물질을 듣고 이해하는 간접 경험이 위험 인식을 형성한다. 따라서 발암물질과 관련된 개인적 위험 인식과 사회적 위험 인식은 뉴스 미디어 노출을 통해 형성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다양한 위험 이슈를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미디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위험 인식이나 지각된 위험 특성의 파악이 다를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홍보 담당자들이 발암물질에 관한 개인적 위험 인식과 사회적 위험 인식 수준을 높이고자 할 때 오락적 미디어보다는 뉴스 미디어를 이용하여 생생함을 바탕으로 개인적 관련성을 제고하여 위험정보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실무적 함의를 제공한다.

www.kci.go.kr

셋째,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식 차원보다는 감정을 대표하는 두려움 차원의 지각된 위험 특성이 개인적 위험 인식과 사회적 위험 인식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위험 인식을 형성하는 데 감정적 반응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오락적인 특성은 감정적 과정을 수반하고, 정보적인 특성은 이성적 과정을 수반하기(Flora & Maibach, 1990) 때문에, 감정적 과정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수반되는 오락적 미디어에 대한 노출이 위험 인식을 상기시키는 데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는 오락적 미디어의 노출은 개인적 위험 인식과 사회적 위험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뉴스 미디어의 노출은 개인적 위험 인식과 사회적 위험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농심의 라면스프 등 음식에서 검출되는 발암물질로 인한 국민의 분노나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강조하는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아시아경제, 2012. 10. 25), 위험과 관련된 뉴스 미디어 보도가 인지적 반응과 함께 감정적 반응도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노출은 지각된 위험 특성의 선행변인으로 작용하며, 지각된 위험 특성은 미디어 노출과 위험 인식 사이에 매개 변인인 것을 알게 되었다. 즉, 발암물질을 다루는 오락적 미디어나 뉴스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면 발암물질이라는 위험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두려움도 형성되며 그로 인해 사회적 위험 인식과 개인적 위험 인식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오락적 미디어는 직접적으로 개인적 위험 인식과 사회적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지각된 위험 특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친다.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지각된 위험 특성은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락적 미디어에서도 위험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식 차원의 지각된 위험 특성은 독립적으로 위험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지식 차원은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 보도할 때는 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심리측정 접근이 지나치게 심리적인 요인에 그치며 위험 인식에 대한

www.kci.go.kr

예측력이 낮다는 비판을 하기 이전에 미디어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지각된 위험 특성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생소한 위험 이슈의 경우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이 위험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지각된 위험 특성이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미디어의 성격을 고려하여 그에 맞게 위험의 특성을 정확하게 제시해 준다면 위험 인식의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6. 한계점 및 향후 연구 제안

본 연구는 심리측정 접근, 비개인적 영향 가설과 차별적 영향 가설이라는 잘 알려진 이론적 개념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일반인을 상대로 체계적인 연구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경험적 연구가 그렇듯이 본 연구도 몇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위험 이슈 중 하나인 발암물질을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위험 인식의 일반화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발암물질 외에 다른 위험 이슈를 함께 비교한다면 더욱 다양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발암물질 이슈에서도 지각된 위험 특성의 차원이 지식(knowledge)차원과 두려움(dread)으로 나뉜다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선행 연구와 달리 통제성이 두려움 차원이 아닌 지식 차원에 포함됨을 확인하였다. 통제성은 인지적인 과정이 수반되는 특성이므로 인지적인 특성을 대표하는 지식 차원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향후 연구에서 어떠한 위험일수록 지각된 위험 특성의 요인이 다르게 구분되며, 일반 시민과 전문가와 같은 수용자 특징에 따라서도 지각된 위험 특성의 요인이 다르게 구분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www.kci.go.kr

첫째, 심리측정 접근은 수용자의 주관적인 위험 인식을 설명하는 모델이므로 주관적인 위험 인식을 형성하는 데 개인적인 성향이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주관적인 위험 인식을 형성하는 데 외부적인 요인으로서 미디어 노출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개인 성향 및 다양한 사회 문화적 요인을 고려한다면 보다 예측력 높은 위험 인식 모델을 성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차별적 영향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매스미디어 노출의 영향력만을 검증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매스미디어뿐 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위험이 보도되고 있다. 차동필(2010)연구에 따르면, 전통 미디어에 속하는 신문, 라디오, 잡지뿐만 아니라 인터넷은 위험 인식 형성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영향력의 크기 면에서도 인터넷은 엔터테인먼트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인터넷은 위험 인식을 형성하는 데 매우 영향력 있는 매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전통 미디어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는 새로운 미디어가 위험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다면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때 어떤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위험 사회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위험 인식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관적 위험 인식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고 평가되는 슬로빅의 심리측정 접근과 위험 인식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력을 설명하는 비개인적 영향/차별적 영향 가설의 이론적 개념을 함께 적용함으로써 지각된 위험 특성을 형성하는 데 사회감시기능을 하는 미디어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특히 미디어의 종류에 따라 지각된 인지적 감정적 위험 특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지를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둘째, 뉴스 미디어는 사회적/개인적 위험 인식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타일러와 쿡(Tyler & Cook, 1984)의 비개인적 영향 가설을 반증하는 결과로서 뉴스 미디어 역시 개인적 위험 인식에 영향

www.kci.go.kr

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오락적 미디어는 사회적/개인적 위험 인식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디어의 종류는 물론 위험의 종류에 따라서도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준 데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오락적/뉴스 미디어가 사회적/개인적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데 지각된 위험의 특성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가 보여 주지 못했던 미디어의 종류, 지각된 위험의 특성, 위험 인식이라는 세 가지 변인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본 연구가 의미 있는 연구임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담당자들이 올바른 위험 인식 형성을 위해 미디어를 상대로 더 강조해야 할 위험의 특성은 무엇인지, 어떤 종류의 미디어로 위험의 어떤 특성을 강조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www.kci.go.kr

참고문헌

김준홍 (2011).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원자력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 비개인적 영향가설 검증. ≪한국 언론학보≫, 55권 6호, 254～275.

노진철 (2010). ≪불확실성 시대의 위험사회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대형마트 "농심 라면 정상판매" … 소비자 "불안하다". (2012. 10. 25). ≪조선닷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24/2012102401391.html

배경헌 · 명희진 · 강주리 (2012. 10. 27). '무해 발암라면' 회수 조치에 시민들 먹어? 말아?.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027009011

설동훈 (1998). 한국인의 위험 인식. ≪한국사회과학≫, 20권 1호, 22～61.

설진아 (2011). 대학생 집단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한 수용자 평가 연구: 네이버와 구글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1권 1호, 157～186.

송해룡 (2012). ≪위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와 공론장≫.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송해룡 · 김찬원 · 김원제 (2013). 미디어 의존과 미디어 보도태도에 대한 수용자의 신뢰성 연구: 원자력 기술을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29권, 115～147.

송해룡 · 조항민 · 이윤경 · 김원제 (2012). 위험커뮤니케이션의 개념화, 구조분석 및 영역 설정에 관한연구. ≪분쟁해결연구≫, 10권 1호, 65～98.

안형기 (2000). 원자력관리를 위한 통합적 접근모형. ≪사회과학연구≫, 13권 1호, 103.

안형기 · 강인호 (2004). 원자력 위험의 사회적 특성과 인식 모형. ≪한국 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39～61.

오미영 · 최진명 · 김학수 (2006). 위험을 수반한 과학기술의 낙인효과: 원자력에 대한 위험 인식이 방사선 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위험 인식과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2권 1호, 467～818.

윤문영 · 좌보경 · 백혜진 (2013). 위험정보에 관한 미디어 보도의 정확성 연구: 발암물질 위험을 중심으로.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7호, 41～79.

이광호 · 이현주 (2012. 10. 25). '발암물질 라면' 전량 회수 … 안일함이 문제 키워(종합).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102519043478259

이나경 (2005). 위험지각의 심리적 차원. ≪인지과학≫, 16권 3호, 199～211.

이인준 (2012. 10. 24). 농심 '발암물질 검출' 논란 증폭‥식약청 재조사 나설까?. ≪뉴시스≫.

www.kci.go.kr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cID=&ar_id=NISX20121024_0011549636

이재신 (2012). 미디어 형식과 위험 메시지 구성이 감정적 위험 인식과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 ≪인지과학≫, 23권 4호, 457～485.

차동필 (2010). 건강 관련 위험에 대한 매스 커뮤니케이션, 대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다차원 건강통제소재가 공중의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인문연구≫, 58권, 647～674.

차용진 (1999). 환경위험 인식의 유형화와 정책적 함의: 경기도 환경관련 공무원을 중심으로. ≪환경 정책≫, 7권 1호, 105～119.

차용진 (2006). 위험 인식 연구: 심리측정패러다임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토, ≪한국정책과학회보≫, 10권 4호, 181～201.

통계청 (2012). ≪2011년 사망원인 보고서≫.

환경부 (2009).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2011). ≪2020년까지 1급 발암물질 32% 줄인다≫.

Peters, H. P. · 송해룡 · 김원제 (2009). ≪위험인지와 위험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Adams, J. (1995). *Risk*. London: UCL Press.

Beck, U. (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London: Sage.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51,* 1173～1182.

Basil, M. D. & Brown, W. J. (1997). Marketing AIDS prevention: The differential impact hypothesis versus identification effects.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6(4)*, 389～411.

Brosius, H. & Engel, D. (1996). The causes of third-person effects: Unrealistic optimism, impersonal impact, or generalized negative attitudes towards media influ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8(2),* 142～162.

Cha, Y. (1997). *Environmental risk analysis: Factors influencing nuclear risk perception and policy implications.* A doctoral dissertation of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lbany.

Culberton, H. M. & Stempel, G. H. (1985). Media malaise: Explaining personal

www.kci.go.kr

optimism and societal pessimism about health care. *Journal of Communication, 35*, 180～190.

Douglas, M. & Wildavsky, A. (1982). *Risk and culture: an essay on the selection of technological and environmental danger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Fischhoff, B., Slovic, P., Lichtenstein, S., Read, S., & Combs, B. (1978). How safe is safe enough? A psychometric study of attitudes towards technological risks and benefits. *Policy Sciences, 9(2),* 127～152.

Flora, J. A. & Maibach, E. W. (1990). Cognitive responses to AIDS information: The effects of issue involvement and message appeal. *Communication Research, 17*, 759～774.

Glynn, C. J. & Ostman, R. E. (1988). Public opinion about public opinion. *Journalism Quarterly, 65,* 299～306.

Graham, J. D. & Rhomberg, L. (1996). How risks are identified and assessed. *Annu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45*, 15～24.

Johnson, B. B. & Covello, V. T. (1987). *The social and cultural construction of risk: Essays on risk selection and perception.* Dordrecht: Reidel.

MacKinnon, D. P., Lockwood, C. M., & Williams, J. (2004). Confidence limits for the indirect effect: Distribution of the product and resampling method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9,* 99～128.

Morton, T. A. & Duck, J. M. (2001). Communication and health beliefs mass and interpersonal influences on perceptions of risk to self and others. *Communication Research, 28(5)*, 602～626.

Nisbett, R. & Ross, L. (1980). *Human inference: Strategies and shortcomings of social judg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Oh, D. G. (2003). Complaining behavior of public library users in South Korea.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5*, 43～62.

Sandman, P. (1997). Mass media and environmental risk: Seven principles. In R. Bate (Eds.), *What Risk? Science, Politics and Public Health.* Oxford: Butterworth-Heinmann.

Shrum, L. J. & Bischak, V. D. (2001). Mainstreaming, resonance, and impersonal impact: Testing moderators of cultivation effect for estimates of crime risk.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7(2)*, 187～215.

Singer, E. & Endreny, P. M. (1993). *Reporting on risk: How the mass media portray accidents, diseases, disasters, and other hazards.* Russell Sage Foundation

www.kci.go.kr

Publications.

Slater, M. D. & Rasinski, K. A. (2005). Media exposure and attention as mediating variables influencing social risk judgments. *Journal of Communication, 55(4)*, 810～827.

Slovic, P., Fischhoff, B., & Lichtenstein, S. (1984). Behavioral decision theory perspectives on risk and safety. *Acta Psychological, 56(1)*, 183～203.

Slovic, P. (1987). Perception of risk. *Science, 23(6)*, 280～285.

Slovic, P. (1992). *Perception of risk: Reflection on the psychometric paradigm*. Westport, CT: Praeger.

Slovic, P. (2000). *The Perception of Risk*. VA: Earthscan.

Snyder, L. B. & Rouse, R. A. (1995). The media can have more than an impersonal impact: The case of AIDS risk perceptions and behavior. *Health Communication, 7(2)*, 125～145.

So, J., Cho, H., & Lee, J. (2011). Genre-specific media and perceptions of personal and social risk of smoking among South Kore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6(5)*, 533～549.

Stapel, D. A. & Velthuijsen, A. S. (1996). Just as if it happened to me: The impact of vivid and self-relevant information on risk judgment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5(1)*, 102～119.

Krimsky, S. & D. Golding, D. (1992). *Social Theories of Risk*. CT: Praeger Publishers.

Tyler, T. R. & Cook, F. L. (1984). The mass media and judgments of risk: Distinguishing impact on personal and societal level judg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4)*, 693～708.

Weiner, B. (2000). Attributional thoughts about consumer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7,* 382～387.

www.kci.go.kr

Abstract

Media, Risk Characteristics, and Risk Perceptions

The Context of Carcinogenic Hazards

Bokyung Jwa
Master Student, Department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at Hanyang University

Moon-young Yun
Master Student, Department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at Hanyang University

Hye-Jin Paek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at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advances theoretical arguments on the impersonal and differential impact hypotheses, and it combines those hypotheses with the psychometric paradigm from risk literature. It examines the direct and mediating associations among the three key variables: exposure to news and entertainment media, (perceived) risk characteristics, and personal- and societal-level risk perceptions. Analysis of online survey data collected among 358 adults nationwide in the context of carcinogenic hazards yields three findings. First, aspects of risk issues related to dread (dread and immediacy), but not knowledge (familiarity, knowledge, and controllability), affected both personal- and societal-level risk perceptions. Second, news media, but not entertainment media, affected both personal- and societal-level risk perceptions. Third, not only news but also entertainment media can have significant effects on both personal- and societal-level risk perceptions indirectly through (perceived) risk characteristics.

Key words: psychometric paradigm, media exposure, risk perception, carcinogenic hazard, impersonal impact hypothesis, differential impact hypothesis

www.kci.go.kr